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일반 계시

(시편 19:1-6)

영국의 변증학자 C. S. Lewis는 시편 19편은 시편 중 가장 위대한 시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9편은 문학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신학적, 영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깊은 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는 자연과 우주를 통해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1. 일반 계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한 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1절).

일반 계시는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된 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편 19편처럼 말씀이나 음성이 없이 만들어진 계시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나 광채,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자연만물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과 태양도 영광스럽지만 그것을 지으신 분이 더 영광스럽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되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 자비, 사랑, 분노, 선, 은혜, 동정심 등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의 계시는 너무 위대해서 땅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계시를 억압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인간 모두는 죽음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2. 일반 계시의 특징

(1) 일반 계시는 계속 된다

일반 계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완성되어 끝났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2절).

일반 계시는 때때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이 끊기지만 일반 계시는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2) 일반 계시는 풍성하다

자연의 모든 개별체는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졌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신체를 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보편적이고 가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이 말하는 최첨단 과학 이론은 ‘우주의 무한 팽창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며 주장하던 이론들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하여 아주 여러 가지의 이론을 내놓았지만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풍성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의 계시는 너무 위대해서 땅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계시를 억압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인간 모두는 죽음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며 주장하던 이론들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하여 아주 여러 가지의 이론을 내놓았지만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풍성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3) 일반 계시는 우주적이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 19:3-4)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인간의 죄가 우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계시했지만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으며 참지식을 억누르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태양의 영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5-6절).

John Stott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 증거의 특별한 예로 태양을 꼽았습니다. 해를 위한 장막은 해가 지고 뜨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태양을 두 청년, 곧 신랑과 장사로 묘사합니다. 둘 다 젊음의 패기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태양의 지식이 없었지만 태양을 보며 우리보다 더 많이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C. S. Lewis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이 이 시의 요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증거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성경 교훈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찾아낸 진리와 창세기의 기록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나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Spurgeon 목사님은 우주를 큰 책으로 성경을 작은 책으로 잘 읽으면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같이 자연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은 피조물로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이처럼 소중하다면 자연은 정화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연을 잘 다스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라디오 :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U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2006 청지기 수련회

9일(월)-14일(토) 6일간 새벽 5시에

우리교회 청지기들이 이번 주간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특강을 통해 훈련을 받고 각오를 다지는 청지기 수련회를 갖는다.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회를 갖고 5시 35분부터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각 요일별로 부서별 수련회를 갖는다. 서울교회 모든

청지기(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 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들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도록 기도한다.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1/9(월)	1/10(화)	1/11(수)	1/12(목)	1/13(금)	1/14(토)	1/15(주일)
05:00-05:30	특별새벽기도회(강사:담당 목사)						청지기 헌신 예배 및 제직 수련회 (찬양예배)
05:35-06:15	윤영국 목사	이태훈 목사	이규정 목사	서명철 목사	이성득 목사	한상은 목사	
대상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전도와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이규정 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지혜영 전도사	섬김을 통한 교회흥사 이성득 목사	중직자의 사명과 자세 한상은 목사	청지기 전원

2006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1월16일(월) 중등부를 시작으로

2006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1월16일(월) 중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2월 중까지 계속된다. 특별히 이번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중에 이종운 목사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해설' 특강이 있어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겨울방학동안 학생들의 신앙성숙과 회개의 시간이 될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기도한다. 각 교회학교별 성경학교/수련회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일시	강사
유아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박금실 전도사
유치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이규정 목사
유년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이태훈 목사
초등부	2/20-21	서울교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래요	이종운 목사 이성득 목사
중등부	1/16-18	평택시 무등산 청소년 수련회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세우는 집	윤영국 목사
고등부	1/19-21	충신기도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종운 목사 박광일 전도사
대학부	2/9-11	승통기도원	주님의 기도	이종운 목사 서명철 목사
청년부	2/10-11	미리내수양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종운 목사
신혼가정부	2/18	미정	주님의 기도	이규정 목사

2006년도 전도위원회 획기적인 변화를 꾀한다

전도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가 2006년을 획기적인 변화의 해로 삼고 있다. 전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18일자 순례자에 발표된 새해에 바뀌는 것 몇 가지 중 전도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고 전도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1. 전도학교 재교육 실시
전도학교 졸업 후 2-3년 경과한 성도들 중에 현재 전도활동 및 중보기도팀, 문서전도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과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 17기 전도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한다.
2. 선교회장, 전도회장 및 임원 전원 전도학교 참여로 전도활동을 강화한다.

- 1) 농촌교회에 전도대를 수시로 파송함으로써 농촌 복음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전도학교 수강자들로 하여금 전도활동을 직접 체험케 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 2) 교구 다락방장의 70인 전도대 요원화(교구위원회 사업계획의 일환)
- 3) 교회학교 전도담당 교사의 전도학교 참여로 교회학교별로 70인 전도대를 결성하고 상호연계활동을 한다.
3. 이를 위해서 전도학교 교과내용을 더욱 새롭게 보완하여 전도 실체에 관한 특강 등 교육을 전도현장에 접목시킨다.
4. 지금까지 목요축조전도팀을 위하여 목요일 오전 10시에 기도회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일 오전 10시에 전도팀을 위한 기도회를 확대 실시한다.

16기 전도학교 수료 17기 전도학교 개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

16기 전도학교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하고 17기 전도학교 과정이 오는 1월15일(주) 오후 2시 802호에서 개강하여 12주 동안 계속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하는 16기 전도학교 수료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장섭, 김재성, 김현관, 문주웅, 신항범, 이상호, 최양진, 최원석, 황정욱, 김경희, 김규희, 김미향, 김복순, 김정란, 박길희, 배정자, 서순희, 양호경, 유숙인, 이미송, 이순복, 이은희, 정복순, 최춘순, 한정자 (25명)

중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중등부 학부모 초청주일 행사가 오늘 1월 8일(주일) 오전 10시 중등부실(501호)에서 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긴밀히 협조하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될 오늘 학부모 초청주일 행사에 많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수화교실 개강

오늘 오후 1시 606, 609호실에서

수화교실이 오늘 오후 1시 606호실과 609호실에서 열린다. 초급반은 606호실(강사: 김혜경 선생-농인수화통역사), 중급반은 609호실(강사: 정문길 선생-수화전문연구소)로 모이면 된다.

2006년 농어촌100교회 후원 작정 명단

번호	이름	구좌
121	사라여전도회	2
122	새가족부	1
123	왕경래,김정희	1
124	임광식,노영숙	1
125	임상헌,서희숙	1

다음주 계속

농어촌 100교회 헌금봉투는 교회 2층 새가족환영실(202호) 앞에 비치되어 있다.

금주의 성구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40:1-2)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that her hard service has been completed, that her sin has been paid for,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Isaiah 40:1-2 [NIV])

2006년 일꾼들에게 듣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길...

윤봉준 장로 (구제위원장)



14년전 우리교회는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출발하여 지난 해 교회설립 14돌에 마침내 예배당을 헌당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벽돌이 아닌 기도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기적으로 헌당케 된 것입니다. 타다 남은 부지깡이 같은 우리들의 적은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가끔 우리는 당연히 드러야 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인색한 헌신을 하였던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헤아리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당 헌당을 마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작은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가장 먼저 과부와 고아,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듯이 우리교회는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교회에 내려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와 이웃은 들이 아닌 하나임을 우리 모두 재인식하고 나만의 삶이 아닌 또 하나의 나- 내 이웃에게 나누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최광성 집사 (선교회 간사)



언제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신년을 맞이할 때면 늘 굳게 다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서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고자 다짐했지만 지금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역시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끝도 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회를 섬기라는 간사의 증임을 맡겨주셨으니 한없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계획하심의 큰 용기와 힘을 얻어 순종하며 충성하겠노라 다짐해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과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의 도움을 힘입어 협력하며 선을 이룰 줄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교회는 회원의 수는 많지만 모이는 회원은 아주 부족합니다. 선교회 회원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모이기에 힘쓰며 회원 간의 친교와 선교 사업에 협력해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함께 맺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직도 선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은 각자 나이에 맞는 선교회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옵소서. 선교회가 발전 부흥케 하시어 일년 뒤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미아 권사 (전도회 간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 손위에 올려놓고 기도드립니다.

전도위원 간사라는 직임의 제가 감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도위원회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명령으로 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겸손히 헌신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06년도 우리교회 표어처럼 "교회, 백성의 위로자" 누구나 오시면 전도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 받으며 또한 위로하는 전도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보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뛰어난 능력자이고 자랑스런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서로협력하고 연합할 때 더욱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겸손으로 나아가 갈 때 우리의 전도회는 날로 발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비전있는 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각각 나이에 맞는 전도회의 들어가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를 발휘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사역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시며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 받는 전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회원 모두는 교회의 전도회 뿐 아니라 해외선교의이르기까지(교회학교 만 명, 선교사 백 명)목표를 향하여 힘껏 힘의 지나도록 달려가는 서울교회 전도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시민 양성-임마누엘 찬양대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3부 청년예배의 임마누엘 찬양대가 새해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청부 청년들로만 구성된 대원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명실 공히 서울교회의 젊은 찬양대로의 일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지난해 서울교회 헌당기념 이웃교회 초청 감사 찬양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으며, 올 한해에도 예배와 특별세벽기도회, 각종 교회 행사에서 찬양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장과 부대장을

제외한 모든 대원이 청년들과 신혼가정부로 구성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젊은 영혼들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한서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지휘자 고성진 집사님은 은유하고 지적인 인격자로 이미 음악계에 정평이 나 있으며, 서울신학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심 집사님과 백송희 자매가 각각 오르간 연주와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2시부터 501호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며, 3부 예배 후에는 대청부 집회를 위하여 별도의 연습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드릴 60여 곡의 찬양 선곡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과 같이 구별하여 신령한 노래로 섬기게 될 청년 찬양대로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나소정(편집부)



전국시민양성 - 순결서약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혜민(대학부)

‘순례자’에서 순결서약 접수를 받는다는 광고를 보고 접수를 할 때만 해도 “순결”이란 것은 나의 몸을 지키는 육체적인 순결만을 생각하고 쉬운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 저녁, 교회에서 받은 2시간 동안의 교육은 저에게 순결이란 내 몸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주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날을 보내는 저이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서 배운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라는 구절은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유혹을 떨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명있는 물고기일수록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처럼 이 문란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 있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결 서약식은 저 자신과의 약속이며, 부모님과 많은 성도들, 그리고 주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이기에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른 크리스찬이 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저의 의지를 불붙여줄 순결반지와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깨닫게 하심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전국시민양성

중등부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중등부는 1월 16일(월) ~ 18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아시는 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란 주제로 2006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 도전과 헌신의 기회 및 훈련의 장이 되도록 하여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도록 영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전인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련회에 대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중등부의 모든 선생님들은 한 없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다만 앞드려며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외침과 금식이 귀한 씨앗이 되어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시민양성

호산나 복지법인 첫 이사회



지난 1월6일(금) 호산나 복지재단 첫 이사회가 열렸다. 지난 해 9월 9일 당회가 복지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1월13일에는 이종윤 목사와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윤봉준 김세재 임상현 장로를 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으로 이종윤 목사, 서기는 임상현 장로, 감사로 오정수, 노송성 장로를 선임했다. 호산나 복지법인 정관과 향후 2년간 사업계획서

와 예산을 심의한 후 이를 관제당국에 법인신청을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준비해온 호산나 학교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는 호산나 학교 학장으로 이종윤 목사, 부학장 이동귀 박사, 그리고 신입교수로 김성연, 박은주, 조유현, 이경희, 강순구 제씨를 채용 임명했다.

이종윤 목사 특별심방한다

이종윤 목사는 1년 이상 병환이나 연세가 높아 기동하기 어려워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해마다 정초에 심방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 주었다.

올해에도 1-2월 중에 이 목사의 특별심방이 교구목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화) 총회소속 군종목사 및 사관후보생을 초청 연합 헌신예배시 설교한다. 13일(금) 장로교 신학회 논문집 편집위원을 소집하고,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득남 : 이태훈목사, 조근아 선생 가정 최봉규, 우보라 성도 가정(12교구)
- 사무실 이전 : 권영미 성도(11교구) (주) 퍼지라이프 송파구 가락동 123번지 T. 408-0684
- 주간식당 봉사 : 스테반회(1월8일) 권사회(1월15일)
- 금주의 식사 : 서명철 목사 주원순 선생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청지기 수련회 큰 은혜가 넘치도록
2. 임명받은 일꾼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3.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